

愛國啓蒙時代の 小說改革運動*

權 寧 珉

- | | |
|------------------------|--------------------------|
| 1. 문제의 제기 | 3. 소설 개혁론의 방향 |
| 2. 애국계몽시대의 구소설 비
판론 | 4. 결론—소설 개혁론의 문학사적
의미 |

1. 문제의 제기

우리 민족은 19세기 후반부터 외세의 도전에 의해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상적인 응전체계를 준비한 바 있다. 개화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 그리고 동학사상 등이 당시의 이질적인 외래 문명과 열강의 세력에 대한 대타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성립된 새로운 사상이다. 이러한 정신적 지향에 힘입어 개항이후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갑신정변, 갑오개혁 등의 근대화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같은 사회단체가 개혁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세의 압력에 의해 자주적인 근대화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근대화운동의 민중적 기반도 확립할 수 없게 되면서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1905년을 전후하여 침략세력의 실체가 일본제국주의임이 분명해지자 국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민족적인 투쟁의지가 더욱 강력하게 촉발되었다. 일제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무력투쟁에 의한 국권회복을 목표로 의병운동이 전국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주역량을 기르기 위한 사회계몽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병운동이나 사회계몽운동은 국권 수호를 위한 실천적인 애국운동이라는 점에서 '애국계몽운동' 또는 '구국계몽운동'으로 지칭되고 있다.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은 궁극적인 목표를 국권의 회복과 그 자주적인 수호

* 이 논문은 世林文化財團의 1984년도 한국학 연구지원비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임.

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천과제로서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정신의 계발, 교육을 통한 민족적 역량의 배양, 외래문화의 주체적인 수용과 민족문화의 육성, 민족산업의 장려와 그 발전, 민족독립운동의 적극 지지와 국권 수호 투쟁 등의 방향⁽¹⁾을 설정하고 있다. 이 운동의 내용은 언론계몽운동·신교육운동·민족산업진흥운동·국채보상운동·국학운동·신문화운동·해외독립기지 창건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에 의해 주도되면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사로서는 張志淵·梁基鐸·朴殷植·申采浩·安昌浩·南宮櫛·李商在·李東寧·李東輝·尹孝定·周時經·金光濟·徐相敦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유학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자기 의식을 개혁하고 새로운 역사의식을 체득한 이른바 改新儒學者들이며 일부는 서구적 신식교육을 일찍부터 받아들인 개화주의자도 있다. 이들은 독립신문 이후 자주 민권 사상의 전통을 이으며 근대화운동의 추진세력으로 자라온 언론운동을 통해 애국계몽사상을 주장하였으며 각종의 학회와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민족적 역량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족 교육에 대한 열의가 모아져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자 애국계몽사상의 계몽과 실천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애국계몽운동이 적극화되는 동안 우리 문학사에도 신문학의 성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야기된 바 있다. 애국계몽시대는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문학 형태가 이질적인 외래 사상과 충돌하면서 그 형태나 내용면에서 새로운 변혁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전통적인 문학의 근대적 변용과 외래적인 문학의 토착화라는 격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학은 자체내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충동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당면한 정치적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문학은 문예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사회계몽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사회현실의 비리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문학의 방향자체도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이념이 그 성격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의 변화는 주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층의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전대문학의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비판하였다. 새로운 시대정

(1) 愼鏞廈,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文學과 知性社, 1980), p. 80.

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의 확립을 위해 전대문학의 개혁이 주장⁽²⁾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³⁾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문학의 변화과정은 대부분의 문학사가들에 의해 전대문학의 붕괴와 신문학의 성립이라는 중요한 문학사적 단계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학의 성립과정에서 애국계몽운동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된 바가 없다. 당시의 문학 현상 중에서 문학사가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던 것은 새로이 등장한 서구적인 문학형태였다. 전통적인 학문에 대한 일체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해야 했던 지식인들의 내면적 갈등과 자기혁신의 의지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전대문학 양식이 근대적인 변용을 거치는 과정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외래적인 문학형태의 출현만을 들어 신문학의 성립을 논하고자 했던 문학사가들은 신문학이 전통문학과 역사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하였고 서구문학에 대한 모방과 이식으로서의 신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학사론의 비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문학의 기점을 18세기 중엽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새로운 견해⁽⁴⁾가 제기된 적도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구분의 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 문학정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신문학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민족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언제부터 새로운 문학형태가 나왔는가, 누가 새로운 문학형태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문학의 정신이 주체적인 민족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완성된 실체로서의 신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이 신문학의 성립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

(2) 林榮澤의 ‘〈東國詩界革命〉과 그 歷史的 意味’(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 批評社, 1984)는 애국계몽시대의 시가개혁론을 점검하고 있는 글로 주목된다. 필자는 최근 ‘申采浩의 小説改革論과 그 限界’(韓國現代小説史研究, 全光鏞外, 民音社, 1984)를 발표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 애국계몽시대의 소설 개혁운동 전반을 검토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拙稿, ‘開化期時調의 詩的形式에 대하여’(韓國學報, 제15집, 1979)는 시조의 형태적 변화과정을 분석 검토한 것임.

(4) 김현·金允植, 韓國文學史(民音社 1973), p. 20,

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시에 제기되었던 구소설 비판론과 소설개혁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여기서 필자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소설형태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포괄하기 위해 그 자체 내에서 드러내기 시작한 변혁의 과정이다. 말하자면 전통문학의 근대적 변용 과정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왕의 문학사 연구가들이 외래적인 문학형태의 등장과정을 신문학의 성립으로 이해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전통단절론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애국계몽운동과 함께 이루어진 신문화운동은 민족문화의 근대적인 확립을 기하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적인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시킬 경우, 국어국문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학의 근대적 변혁을 위한 노력이 주목된다. 국문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에 대한 주체적인 각성이 이 시기에 일반화되었으며, 봉건적인 속박을 철폐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정신적 방편으로서의 문학의 가치가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더욱 중요시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애국계몽시대의 구소설 비판과 그 개혁론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실천 작업이었던 것이다.

2. 애국계몽시대의 구소설 비판론

애국계몽운동과 신문화운동의 연관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애국계몽운동 자체의 성격이 사회적인 측면에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여기에 가담한 인물들도 전문적인 문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의세의 침략에 직면한 절박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추진된 애국계몽운동은 그 범위가 특정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당시의 모든 사회국면에 관심을 갖고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상이면 무엇이든지 찾아보고자 했던 지식층에 속해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따라 한학을 수학한 후에 새로운 서구 문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경우도 있고, 일찍부터 신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의 세계에 접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은 모두 봉건 조선사회와 근대적인 서구정신이

충돌하는 혼란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대적 현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애국계몽운동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은 국학운동과 신문화운동에 앞장섰으며, 大韓每日申報 등의 언론기관에 관여하면서 많은 애국계몽 논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논설을 문예의 영역에 한정시켜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상적 경향을 고려할 경우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이 팽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朴殷植의 경우 ‘文’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經典의 學’이나 철학·역사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국문의 용성을 문학의 성취와 관련지어 논한 바도 있고, 시대에 알맞은 조치를 깊이 강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속성에서 문학의 가치를 찾기도 하였다. 그가 말하고 있는 ‘문학’이란 신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학문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술분야나 사회과학 그리고 민족문화를 논하는 국사나 국문 등이 모두 이에 포괄되고 있다. 이러한 朴殷植의 주장은 張志淵이나 申采浩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미로 강조되었다. 張志淵은 ‘文’의 개념을 정치제도의 도구라고 규정⁽⁵⁾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사회와 국가를 성립 유지시켜 주는 요건으로서 ‘文明’이나 ‘文化’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文’ 자체에 대한 숭상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張志淵이 우려하고 있는 ‘文’의 폐단이란 ‘文勝’과 ‘文盛’의 경우이다. 전자는 지나치게 ‘文’ 자체에 얽매어 거짓으로 꾸미고 속임수를 씌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며, 후자는 ‘文’이 너무 성행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백성들의 뜻도 나약해져서 나라가 멸망하게 됨을 말한다.

결국 ‘文’의 용성과 쇠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결론은 朴殷植이나 張志淵의 경우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지니고 있던 ‘文’의 개념은 문예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넓은 의미에서 실용적인 학문을 뜻한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文弱’의 폐해는 사물의 실질을 밝히는 데에 소홀했던 전통적인 ‘詞章文學’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文學’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實質之文’을 중요시한 것은 새로운 시

(5)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西友, 제10호, 1907.9).

(6) 張志淵, ‘文弱之弊’ (韋庵文稿, 國史編纂委員會, 1971), p. 351.

대 정신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애국계몽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논설형태의 산문양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애국계몽시대에 사회적 기능이 확대된 논설양식은 신문이나 잡지의 논설, 여러가지 교과용 도서나 역사서, 번역도서의 서술방식으로 채택되어 산문양식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논설양식의 확대는 지식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정보성과 기록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라는 설득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애국계몽시대의 지식인들은 논설양식의 문체로서 국한문체를 채택하여 그 기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하였으며 국한문체는 논설양식의 지배적인 문체⁽⁷⁾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지만, 당시의 국한문체는 한문투의 문구에 국문으로 토를 달아놓은 정도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기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애국계몽시대의 모든 지식이나 사상의 전달과 계몽 수단으로서 국한문체의 논설양식이 획득하고 있던 사회적 기능성은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적 독자층보다는 그것을 기술하는 지식층에게 더욱 편의적인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 지양하기 위해 논설양식 자체를 국문체로 전환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도 있긴 하였지만, 일반화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애국계몽운동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국문체의 서사양식으로 대중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소설이다. 당시 독자대중들은 애국계몽적인 국한문체의 논설양식을 통해 지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소설의 흥미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소설의 상업적인 출판이 이 무렵에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말해주는 요건이 된다.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적인 출판사로 손꼽을 수 있는 博文書館·唯一書館·滙東書館·新舊書林·漢城書館 등에서 출판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필사본 또는 방각본의 형태로 전래되어 오던 구소설⁽⁸⁾들이다. 흔히 딱지본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활자본 구소설의 등장은 소설의 상업적 출판에 새로운 기원을 이루고 있다.

(7) 拙稿, '開化期の 散文樣式과 國漢文體의 擴大'(開化期小説의 文體研究, 서울大 現代文學研究會, 1975), p. 20.

(8) 李能雨, '古代小説 舊活字本 調査目錄'(淑明女大論文集, 제 8 집, 1969)에 의하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10여종 이상의 구소설을 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자본 구소설은 제작의 원가가 절약되고 출판기간이 단축되어 일시에 많은 책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다수 간행되었던 것이다.

활자본 구소설이 독자 대중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응력을 주목하고 있던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소설의 사회 공리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인 역기능을 문제삼아 소설의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朴殷植은 「瑞士建國誌」(大韓每日申報社, 1907)를 번역 간행하였는데, 그 서문을 통해 자신의 소설관을 펴려하고 구소설의 문제성을 지적 비판하고 있다.

夫小說者는 感人이 最易하고 入人이 最深하야 風俗階級과 教化程度에 關係가 甚鉅호지라 故로 泰西哲學家가 有言호디 其國에 入호야 其小說의 何種이 盛行호는 것을 問호면 可히 其國의 人心風俗과 政治思想이 如何호는 것을 觀호리라 호엿스니 善哉라 言乎여……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國人所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호고 自支那而來者는 西廂記와 玉麟夢과 剪燈新話와 水滸誌等이오 國文 小說은 所謂蕭大成傳이니 蘇學士傳이니 張風雲傳이니 淑蕙娘子傳이니 호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호야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호니 是는 皆荒誕無稽호고 滯靡不經호야 適足히 人心을 蕩了하고 風習을 壞了호야 政教와 世道에 關호야 爲害不淺호지라 若使世之觀國者로 我邦의 現行호는 小說種類를 問호면 其風俗과 政教가 何如타 謂호깃는가⁽⁹⁾

朴殷植은 소설과 인심·풍속·정치·사상 등의 밀접한 연관성을 내세워 소설이라는 것이 〈民智의 啓導〉와 〈國性의 培養〉을 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런데 소설이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소설이 있다 하더라도 한문으로 씌어진 것은 널리 읽히지 못하고, 국문소설이란 것은 대부분 황당무계하여 민심과 풍속을 오히려 해치고 있기 때문에 〈政教 世道〉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식층 인사들이 소설을 가벼이 여기고 소설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나라와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교육을 위해서도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瑞士建國誌」를 역술한 것도 국민의 애국심을 분발케 한다는 계몽적인 의도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 비슷한 구소설 비판론은 「經國美談」(현공염역, 우문관 1908)의 역자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9) 「瑞士建國誌」의 역자 서문

간관은 청설하시오 아한국문의 편리가 한문보담 긴요하여 민지를 발달하기가 쉬우되 이왕 여념이서 성남하는 소설이 부탄허무하여 부녀와 목동의 담소하는 자퇴가 될 쓰름이오 지식과 경륜의는 일호유익이 업슬 썩더러 원더훈 식견의 방허가 불무인고로 빅슈춘옹이 야인을 감심하고 현현장부가 우뵝을 면치 못하니 엇지 키탄치 아니허리오 이리므로 본인이 각국서적을 편람하다가 제무국 회복하던 영웅준걸의 위국 혈성을 감동하여 경국미담 신소설을 번역허되 고투의 부허지설은 일결불용호오니 구람하시논 첩군조는 고인의 사적을 보와 위국심을 분발하여 일후라도 몸소 당홀 지위를 생각하시오. (10)

지식과 경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소설들이 널리 읽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앞의 인용에서도 일반 대중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만하다.

申采浩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설 비판론에 동조하면서 소설의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近今 國文小說 著者の 注意」(大韓每日申報, 1908. 7. 8)와 「小說家の 趨勢」(大韓每日申報, 1909. 12. 2)라는 두 편의 논설은 申采浩가 소설의 도덕적 감화력과 그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단적인 예에 속한다. 이 글에서 申采浩는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같은 영웅호걸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부패가 극도에 달하고 도덕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천하사업을 논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와 인간 심성의 오묘함을 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들을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륜을 내세워도 국민의 기질을 전이시켜 놓기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런데 국문소설은 〈婦孺走卒〉이 모두 좋아하고 있으므로, 그 사조와 필력에 따라 어떠한 정치·종교·학문보다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덕성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이 사회의 모든 경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소설의 독자층이 상당한 세력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嗚呼라 英雄豪傑의 驅體를 助하여 天下事業을 做하는 是는 婦孺走卒이 是요, 婦孺走卒等 下等社會로 始하여 人心轉移하는 能力을 具한 者는 小說이 是니, 然則 小說을 是豈易觀할 배인가. 委靡淫蕩의 小說이 多하면 其國民도 此의 感化를 受할지며 俠情慷慨의 小說이 多하면 其國民이 此의 感化를 受할지니 西儒의 云한 바 「小說은 國民의 魂」이라 함이 誠然하도다. 韓國에 傳來하는 小說이 太半 桑間陌上의 淫談과 崇佛乞福의 怪話라. 此亦 人心風俗을 敗壞케 하는 一端이니 各種 新小說을 著

(10) 「經國美談」의 역자 서문

出하여 此를 一掃함이 亦汲汲하다 云할지로다……然而 近今 新小說이라 云하는 者 刊出이 稀罕할 뿐더러 又 其刊出者를 觀한 즉 只是 一時牟利的으로 草草撰出하여 舊小說에 比함에 便是百步五十步의 間이라 是히 新思想을 輸入할 者이 無하니 余가 此를 慨하여 管見을 陳하여 小說讀者에게 警告하노라. (11)

申采浩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앞의 인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소설의 막중한 감화력에도 불구하고 신사상을 논할 수 있는 진정한 신소설이 출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효용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申采浩에게는 음담패설에 불과한 구소설이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소설이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申采浩는 당시 독자층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던 소설들이 〈淫談〉, 〈怪話〉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설의 소재 내용의 윤리성과 사실성에 근거한 판단이다. 소설의 내용과 그 윤리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도 〈소설의 내용이 음예하고 허망하여 속된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진실을 혼동케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크게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설의 기능을 주목하여 新思想을 담은 새로운 소설의 창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소설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긍정적인 요건을 내세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주장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嗚呼라 小說은 國民의 羅針盤이라. 其說이 俚하고 其筆이 巧하여 目不識丁의 勞動者라도 小說을 能讀치 못할 者이 無하며, 又 嗜讀치 아니할 者이 無하므로, 小說이 國民을 強한데로 導하면 國民이 強하며, 小說이 國民을 弱한데로 導하면 國民이 弱하며, 正한데로 導하면 正하며, 邪한데로 導하면 邪하니, 小說家된 者이 마땅히 自愼할 바어늘 近日小說家들은 誨淫을 主旨로 삼으니 이 社會가 장차 어찌 되리오. (12)

소설은 국민의 〈羅針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앞의 인용에서 국민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정신적 지침으로서의 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소설가의 〈自愼〉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소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우리 사회가

(11) 申采浩 ‘近今 國文小說 著者の 注意’

(12) 申采浩 ‘小說家の 趨勢’

직면하고 있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화방면의 실천작업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당시의 소설적 견해는 비록 소설의 서문이나 후기 또는 신문·잡지 등에 단편적으로 표명된 것이기는 하지만,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구소설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소설의 사회공리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모든 구소설을 혁파하고 신소설의 창작을 위해 지식인들이 소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구소설은 단순히 낡은 것이거나 옛것이어서가 아니라 허탕무거하고 음예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므로 거부된다. 이러한 구소설을 개혁하여 실제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민중을 계도할 수 있는 신사상을 담은 신소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속에는 소설내용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그 하나는 소재의 사실성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의 윤리성이다. 소설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은 묘사의 <寫實性>이 아니라 성격과 행위의 <實在性>을 문제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애국계몽시대에 소설에 관심을 두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소설이 실제의 사적에서 그 내용을 구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국적인 역사기록이나 영웅적인 인물의 생애를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고 그것을 통해 현실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설 내용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은 소설의 대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소설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배격할 것이 아니라, 계몽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소설의 윤리성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사상의 수용인데, 이러한 소설 개혁의 방향은 당대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3. 소설 개혁론의 방향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구소설 비판론은 구소설의 내용에서 비현실적인 속성과 비윤리적인 측면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구소설이

허황된 사실을 과장하여 그려놓거나 남녀의 애정문제를 음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소설의 내용과 그 문학 정신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설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구소설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해 보려는 실천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소설에 대한 비판과 그 개혁을 위한 노력은 전통적인 문학형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그 자체내에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 주체적인 문학운동으로 주목되고 있다.

구소설 비판론을 내세운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은 자신들의 소설적 관심을 구체화 하기 위해 소설의 창작과 번역에 손을 댄 바 있다. 朴殷植은 「瑞士建國誌」를 역술하고, 「夢拜金太祖」(1911)를 발표하였고, 張志淵은 「이국부인전」(1907)을 발표하였다. 申采浩의 경우는 「伊太利建國三傑傳」(1906)을 번역한 후에 「乙支文德」(1908)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1908) 「東國巨傑 崔都統傳」(1909) 등을 저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比斯麥傳」(黃潤德역, 1907) 「라란부인전」(1907) 「華盛頓傳」(李海朝역, 1908) 등이 소개되었으며, 「愛國精神」(李採雨역, 1908) 「經國美談」(玄公廉역, 1908) 등도 번역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성격상 대부분 소설적인 속성보다는 역사서 또는 전기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乙支文德」, 「崔都統傳」, 「李舜臣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번역 소개된 것들이다. 애국사상의 계발, 역사지식의 보급, 민족의식의 자각 등 계몽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들 작품의 성격은, 역사를 거울삼아 현실을 경계한다는 전통적인 역사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주독립의 의지와 민족의식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¹³⁾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애국계몽시대에는 소설이라는 술어 자체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는 문학양식은 그 규범과 속성을 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지만 애국계몽시대에는 역사서나 전기 등에 소설이라는 표제가 붙기도 하였고 신소설 고대소설 등 시대적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 외에도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政治小說 瑞士建國誌」, 「科學小說 鐵世界」(李海朝역, 1908), 「教育小說 伊太利少年」(李輔相역, 1908), 「演劇小說

(13) 拙著, 韓國近代文學와 時代精神(文藝出版社, 1983), p. 261.

銀世界」(李人植, 1908), 「實業小說 富蘭克林傳」(李始厚譯, 1911) 등이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소설이라는 술어를 역사서나 전기 등에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허구적인 서사문학 양식만을 소설로 국한시켜 놓는 근대적인 소설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물론, 정치소설, 과학소설, 교육소설, 실업소설 등의 구분은 비록 소설 문학의 독자적 예술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설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간행된 역사서나 전기 등을 포함하여 번역소설이나 초기 창작소설을 넓은 의미의 정치적 산문 또는 정치소설이라는 명칭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견해⁽¹⁴⁾도 제시된 적이 있다. 이들 간행물들이 대부분 서사적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정치적 이상을 선전하거나 자주독립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계몽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설의 용어 개념의 포괄성을 반영하듯이, 애국계몽시대의 소설에 대한 개혁 논의는 두가지의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는 소설의 교화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주장이며, 둘째는 교화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국문소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설의 교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 계몽의 수단으로서의 소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과 연관된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소설이 실상의 기록을 통하여 현실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구소설이 음탕하거나 허황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 대중의 지식과 경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실제 사적을 바탕으로 민중을 계도하고 사회를 각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국적인 역사 기록이나 영웅적인 인물의 생애를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고, 그것을 통해 현실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간행된 역사서나 전기는 거기에 담긴 실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설의 교화적 속성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소설 개혁론의 방

(14) 林和, '概說新文學史' (朝鮮日報, 1939. 11)의 '政治小說과 翻譯文學' 참조.

항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실천 작업으로는 申采浩의 전기문학을 손꼽을 수 있다. 申采浩는 「伊太利建國三傑傳」(廣學書舖, 1907)을 역술하여 국가적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애국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뒤에 「乙支文德」(廣學書舖, 1908)을 발간하면서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대한매일신보, 1908. 5. 20~8. 18), 「東國巨傑 崔都統傳」(대한매일신보, 1909. 12. 5~1910. 5. 27)을 발표하였다. 이들 영웅전기는 역사문학 내지 역사소설의 前史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들로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국적인 영웅적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영웅전기는 단재가 내용의 실재성과 윤리성을 들어 주장한 소설개혁의 방향에 적응되는 궁극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전기는 역사속의 실제 인물의 생애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의 정확한 계산이나 사건의 인과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구별된다. 특히 사실 자체의 입증이나 해명보다 그 속에 담겨진 개인적 감성과 시대 상황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동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기는 영웅적 인물의 생애를 중시함으로써 일상적인 개인의 삶을 통해 현실의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설의 근대적인 속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 申采浩 자신도 역사 주체로서의 영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재가 위인들의 전기를 쓴 것은 당시 국권회복에 있어서 위인 열사들의 영웅적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龜鑑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신념에서였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물들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영웅>이라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토마스 칼라일의 《英雄崇拜論》을 원어로 읽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와 같은 추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는 한말의 어지러운 국내외적 제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웅이 출현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英雄論을 논한 것은 <新人物을 喚起>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단재는 역사 주체로서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다⁽¹⁵⁾

申采浩의 영웅관은 물론 일관된 논리를 지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는 국가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영웅의 출현은 한 시대

(15) 李萬烈, '丹齋史學에 있어서의 歷史主體認識의 問題'(丹齋 申采浩와 民族史觀, 단재신채호 기념사업회, 1983), p. 60.

의 상황이나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당시의 국민적 역량이 그런 정도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申采浩는 민족의 과제를 영웅의 출현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역사주체로서의 민족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그 자신의 관심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申采浩의 영웅적 세계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乙支文德」, 「李舜臣傳」, 「崔都統傳」 등을 보면, 그 서사적 골격은 전통적인 한문학의 한 장르인 <傳>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서술적 방식에 있어서는 애국계몽시대에 널리 확대되기 시작한 논설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申采浩의 주장대로 소설의 실제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면서 역사 주체로서의 영웅관에 부합될 수 있는 소설의 형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의 근대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소설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한 인간의 삶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서사양식으로서의 <傳>의 특질이 단재의 전기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상통된다. 申采浩의 학문적 기반 자체가 전통적인 한학을 위주로 한 것이고 <傳>이라는 것이 한문학의 한 전형적인 양식임을 생각한다면, 이들 전기가 가지는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申采浩가 그려내고 있는 전기가 전통적인 <傳>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선 그 구조적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傳>의 경우에는 도입·전개·종결이라는 내용상의 단계가 구분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乙支文德」이나 「崔都統傳」 등도 모두 앞뒤에 서론과 결론을 붙이고 그 대상인물의 행동과 인품을 소개하는 전개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서술태도에 있어서도 <傳>의 경우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申采浩의 전기는 역사상 실제인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실제성의 의미가 강조되며, 그 인물의 생애를 통해 당대적 현실문제에 우회적 접근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지향성이 드러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傳>이라는 양식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역사가 사실의 진실성에 목표를 둔다든지 소설이 허구적 시간과 공간속에서 인간의 삶의 진실성을 지향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乙支文德」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민족에게 영웅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 <過去의 英雄을 寫하여 未來의 英雄을 招>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전제하고 있으며, 「李舜臣傳」이나 「崔都統傳」에서도 비슷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 이들 전기에는 모두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에 적

웅하는 영웅적 인간의 존재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으나 영웅적 인간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윤리적인 규범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웅적 인간상의 형상화에 있어서 그 구체성 보다는 申采浩 자신의 의지의 구현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申采浩는 영웅의 〈心事를 描寫〉하겠다고 서두를 꺼낸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행위의 구체성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영웅적 이상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자신의 이념을 투영시켜 놓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인하여, 申采浩의 전기는 〈傳〉에서 볼 수 있는 요약적인 진술보다 그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적인 구성의 일관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 전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삽화들도 행위구조의 긴밀한 연관성을 위해서 보다는 영웅적 의지와 신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申采浩의 전기에서 볼 수 있는 서술방식의 특성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그 문체에 있어서 설화적인 측면을 거세하고 논설적인 측면을 확대시킨 점이다. 애국계몽시대에 논설적 산문양식이 국한문체의 확대와 함께 가능했음을 생각한다면, 申采浩의 전기들이 논설적인 문체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한문체는 한문이 지니는 表意性과 국문이 갖는 정서적 감응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식전달의 기능성으로 인하여 논설양식의 대표적인 문체가 되었던 것이다. 申采浩의 전기의 문장을 보면 고대소설의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더라〉체의 서술종결법 대신에 〈~노라〉, 〈~이라〉 등의 叙法상의 意圖法을 표시하는 종결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모든 행위와 사건을 현재화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견해를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자층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申采浩의 영웅전기는 결국 전통적인 〈傳〉의 양식이 논설양식으로서의 확대에 도달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傳〉의 소설화의 과정이나 역사화의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소설을 개혁하고자 했던 申采浩가 소설의 범위를 벗어나 논설적 산문양식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통적 문학양식의 근대적 변용과정의 한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 전기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진 申采浩의 소설 「꿈하늘」이 전통

적인 〈夢遊錄〉의 양식적 변용이라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국계몽시대의 소설 개혁론의 또다른 측면은 국문소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내세운 새로운 소설은 우선 국문으로 씌여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국문소설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국문소설에 대한 주장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국어국문운동¹⁶⁾과 직결되고 있다. 국문 전용에 대한 주장은 물론 독립신문이 1876년에 순국문으로 간행되면서 구체화된 것인데 갑오개혁 직후에 발표된 고종의 칙령에서 국문 사용이 공식화됨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1907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가 개설되어 국어국문에 대한 연구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국어국문운동이 周時經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에 의해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국어국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한말의 시대적 상황을 전제할 경우 외세의 위협에 대응하고 봉건적 사회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독립자강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주독립의식의 성장과 함께 자국문화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자, 정신과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어국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한문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문자생활의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상적 변화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중요시해야 할 점은 국문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서구 문물의 수용과 그 보급에 있어서 문자가 담당해야 할 매체로서의 기능성을 놓고 볼 때, 한문은 상당한 계층적 제약성을 갖는 것인 데에 반하여 국문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애국계몽시대의 국어국문운동은 교육과 신지식의 보급이라는 실용주의적인 측면과, 언어와 문자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의 심성을 바로잡고 국가

16) 국어국문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韓國文化研究所, 1970)를 참조.

의 독립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언어민족주의적 지향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 운동의 이론적인 선구자였던 周時經이 언어와 문자가 민족마다 다르다고 바로 그 유별난 특징이 민족의 특수성을 규정해 주는 요건이라고 주장한 점이라든지 國性으로서의 언어를 修理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독립과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등은 모두 국어국문운동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¹⁷⁾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애국계몽운동가였던 朴殷植·張志淵·申采浩 등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언어와 문자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朴殷植은 「興學說」, 「學規新論」⁽¹⁸⁾ 등에서 모든 백성이 학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문전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나라의 문명이 교화로써 이루어지고 교화의 응성이 학식에서 비롯되는데, 그 학식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국문교육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스로 국문연구회(1907)의 연구원으로 가담하여 국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모든 한문 서적들에 대한 국문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국문 전용론을 강조한 것은 국민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문을 우선 교육해야만 그것으로 모든 지식을 일반 백성들에게 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張志淵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張志淵이 국문에 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피력한 것은 「國文關係論」⁽¹⁹⁾이라는 글로서, 이 글의 내용은 언어문자의 독립적 특징, 한문의 폐해, 국문 사용의 필요성 등을 논한 것이다. 그는 문자라는 것을 각기 그 나라의 말과 소리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각국의 말과 글이 독특한 것은 그 습속의 차이에서 연유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사물의 이치가 모두 다르고 모든 인간들의 언어란 것도 무궁하므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 국가의 언어를 일치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한 나라의 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張志淵이 지적하고 있는 한문의 폐해는 한문의 난해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사람조차 필생의 힘을 다해도 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17) 李秉根, '愛國啓蒙時代의 國語觀' (韓國學報, 제12집, 1978) 참조.

(18) 朴殷植全書(檀大東洋學研究所, 1975) 中卷.

(19) 張志淵, 韋庵文稿, p. 229.

민족은 습관에 얽매어 한문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말은 말대로 우리말을 쓰면서 그 기록은 중국의 한자에 의존했기 때문에 말과 글이 일치되지 않는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계속했던 것이며, 그 결과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백성을 새로운 지식으로 계도해 나아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張志淵은 교육의 발달과 독립의 만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을 사용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언어와 문자가 균일해야만 마음이 한결같고 여기서 애국사상이 우러나와 더욱 커다란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국문은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우며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널리 가르쳐 문자생활에 불편을 없이한다면 백성의 지혜를 계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이다.

국어와 국문을 나라의 독립의 보배로 생각하고 있던 張志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申采浩는 국문으로 씌어진 문학만이 참된 우리의 문학이 될 수 있다는 민족문학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국한문의 輕重을 논하여 국문의 소중함을 강조하였고 <自國의 言語로 自國의 文字를 編成하고 自國의 文字로 自國의 歷史地誌를 纂輯하여 全國人民이 捧讀傳誦하여야 其固有한 國精을 保持하며 純美한 愛國心을 鼓發>⁽²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소설에 대한 그의 주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국문소설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국문전용론은 교육과 신지식의 보급이라는 실용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언어와 문자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의 심성을 바로 잡고 국가의 독립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언어 민족주의적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언어와 문자가 각 민족마다 다르고, 바로 그 유별난 특징이 민족의 특수성을 규정해 주는 요건이 된다는 생각은 언어와 민족의 일치를 강조하고 민족의 독자성을 내세우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언어문자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언어문자의 우열까지도 나누어 보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언어의 보편적인 특질을 중요시하는 근대적인 언어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자칫하면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경직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朴殷植이나 張志淵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말이 그 나라의 인습이나 풍속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나라의 언어는 하나의 문자로서 통

(20) 申采浩, '國漢文의 輕重'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p. 75.

일된다는 사실은 언어와 문자의 국가적 민족적 특수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의 규범과 문자의 원리를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申采浩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독특한 언어와 문자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언어문자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민족국가의 정통성이나 고유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문물을 습득하고 교육한다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문자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요건을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각성시켜준 언어문자에 대한 민족사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과 견해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자신의 문필생활에서조차도 국문전용의 완전한 이상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의 논설은 국한문을 혼용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문체의 관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국계몽시대의 국어국문운동은 문자생활의 영역에서 한문의 세력을 현격하게 축소시켜 버렸고, 한문투의 문장에서 국문체로 이행하는 국한문체의 다양한 분화를 낳게 하였다. 특히 국문신문의 간행과 교과용 도서의 보급, 성서의 국역, 그리고 국문소설의 확대 등은 국문체의 발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생활의 변화는 문학의 영역에서 특히 자국어와 문자로 이루어진 문학만이 진정한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시대의 소설개혁론자들이 국문소설을 주장한 것은 결국 소설이 갖추어야 할 민족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제시한 것인데, 국문체의 가장 확고한 기반이 민중의 일상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국문체는 고전소설에서부터 전통적인 문체로 고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諺文體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는 고전소설의 국문체가 신소설 이후 그 실화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지식과 사상의 보편화를 염두에 두고 국문소설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소설의 수용계층과 그 문학적 기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 주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애국계몽시대에 고대소설을 거부하고 새로운 소설을 내세운 소설

개혁에 대한 주장은 중국에서 梁啓超가 내세웠던 “中國小說界革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梁啓超는 중국의 전통소설이 “誨盜誨淫”하기 때문에 시국과 風敎의 영향과는 아무 도움이 없고 오히려 사회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혹평하면서 애국심·모험심·진취적 정신 등을 심어줄 수 있는 전기나 정치소설을 번역 간행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한 소설 개혁의 방안은 정치소설의 번역 간행, 언문 일치 구어체의 소설 출간, 위인 전기의 간행 등이었는데, 애국계몽운동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내세웠던 소설개혁의 주장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梁啓超의 저작 가운데에서 『淸國戊戌政變記』(玄采역, 1900), 『越南亡國史』(玄采역, 1906), 『라란부인전』(1907), 『伊太利建國三傑傳』(申采浩역, 1908), 『飲水室自由書』(全恒基역, 1908), 『中國魂』(張志淵역, 1908) 등은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고, 『愛國論』, 『論幼學』, 『變法通議序』와 같은 많은 논설도 번역되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영향관계⁽²¹⁾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소설 개혁론의 문학사적 의미

애국계몽시대의 소설개혁에 대한 주장은 그 시대적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설문학의 근대적 확립의 단계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 원인은 이 논의의 주창자들이 소설이라는 문학양식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그들은 전문적인 소설작가도 아니며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소설에 대한 견해도 전통적인 효용론적인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욱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던 것은 문학의 근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확립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민중의 삶은 현실의 혼돈속에서 근대적인 인식과 그 성장을 지탱할 수 없었다. 더구나 현실적 삶의 기반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학이 한두 사람의 선각적인 지식인의 활동만으로 새롭게 개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일제의 세력확대와 그에 따른 강압적인 사회적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정면에서 금지시키고 있었으므로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21) 梁啓超의 소설론과 그 영향문제에 대해서는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와 葉乾坤, 梁啓超와 舊韓末文學(法典出版社, 1980)에 의해 詳論된 바 있다.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지적될 수 있다. 1906년 2월부터 일제는 統監府를 설치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적 지배를 시작하였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규정한 을사조약의 체결은 일제가 약탈의 체제를 굳힐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1907년에 공포된 신문지법은 침략세력에 대항하면서 자주 독립의식을 강조했던 모든 신문·잡지등의 출판에 탄압을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신문화운동이 자주적인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적 제약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제의 침략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애국계몽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전기소설들이 발간되지 못하자 창작된 신소설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창작소설로서의 신소설은 역사 전기소설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계몽적인 의도의 직접적인 표현과는 약간 다른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창작소설로서의 신소설이 가지는 허구적인 성격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소설의 작가가 당시의 현실에 대해 보여주고 있던 작가적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애국계몽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朴殷植이나 申采浩 등과는 달리, 신소설의 작가 李人植·李海朝·崔瓚植·金敎濟 등은 신식 교육과정을 거친 근대적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문학활동은 합방 직전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血의 淚」(1906) 이후 작중인물과 사건의 실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그 내용 속에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소설, 이른바 「신소설」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설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전통적인 지식인 계층의 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비판과 사회계몽적인 의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점과는 달리, 소설의 허구적인 성격에 착안하여 주로 소설이 갖는 <재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특징⁽²²⁾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정신적인 극복의 노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타협일 수도 있다. 물론 이들의 소설이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형성케 한다는 소설의 공리를 전적으로 의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의 문제보다는 작품속의 주인공의 개인적인 운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화기의 사

(22) 拙著, 韓國近代文學과 時代精神(文藝出版社, 1983), p. 262.

회현실과 생활양식이 주인공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 채, 그 인물의 개인적인 국면에 귀착되어 버린 점,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도덕원리나 취미기준을 그대로 소설 속에 적용시켜 놓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정신적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점은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소설개혁에 대한 주장은 결국 신소설의 성행과 함께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일제침략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민족사에 대한 정리작업과 저항적인 독립투쟁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예활동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설개혁에 대한 주장은 이른바 개화기 소설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애국계몽운동 가운데에서 제기되었던 소설개혁론은 과거의 구소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학의 새로운 개혁을 과거 문학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시대정신의 수용을 통해 시도해 봄으로써,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통문학의 형식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문학형식으로서의 근대적인 소설의 창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전통문학의 근대적 변용과정을 주체적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된다.

둘째, 국문소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문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문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에 대한 각성은 국어국문이 우리 문학의 근본요건임을 재인식시켜준 계기가 되고 있다. 한문학을 위주로 했던 전통적 문학관이 이러한 태도에 의해 새롭게 변모될 수 있었고 국문체의 문학적 세련을 기할 수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째, 애국계몽 시대의 소설개혁에 대한 주장은 예술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구국계몽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주장 자체가 정치의식 내지는 사회적 계몽성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들어 그 문학성의 추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실제로 당시 개혁론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申采浩의 전기는 전통적인 한문학 장르인 <傳>의 양식을 논설양식으로 확대시켜 놓고 있을 뿐, 소설적 형상화의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

